

안으로 ~~부군~~칠성. 바깥으로 칠원상군.
 강남천지 이양산골 짓없는 밭. 한가름 송깃골로
 소왕소왕 솟아남근. 장나라 장씨대강. 종나라
 송씨부군. 낮이 부군 구렁대신. 전장제 조은장제
 배푼장제. 황궁제 일곱애기 단애흔청.
 동도칠성 칠원상군. 서도칠성 칠원상군. 남도칠성
 칠원상군. 북도칠성 칠원상군. 갠가지목 매와오년
 칠원상군 대성군. 공단애기 비단애기. 붉은 점에
 흰 점에 검은 점에 노린 점에 오색 백이 부리영화 시저집서
 윤근년 10년 이월 10일 날 (주소: ~)
 초장건어 초파일 일어두고. 이장건어 이파일 일어두고
 삼장건어 삼파일로 일어두고. 빨하강에 빨택일 받아
 치신엔 천지하강 신노리고 생인에게 낚생기에 복덕일
 여주에게 근살절에 복덕일을 건우잡아. 장강객강
 제맛인날 글라잡아 이 축소를 드립네다.
 해가 넘는 연유. 들도 넘는 연유. 칠성제 지샘사시
 이 주왕에 부남영화 시저집서.
 나루에 분서능 제초흡서. 물말아로 제초흡서.
 산뒤에도 제각 제초흡서. 조에랑근 오시조 황조
 제 먹는거 제초흡서. 꿈에는 제나분디 제초흡서
 물디에는 물아리 제초흡서. 표에는 제잡자기. 대죽에는
 세정대죽. 수에는 세정수물. 수물에는 중방이.
 예네에는 제 등기등 우근지도 제초흡서.
 안으로 들어사난 부군칠성 대칠성은 칠원상군
 황사능. 아능사능. 댕가지 압사. 아불림도 얻르지 압사.
 나 댕기당 옥불네다. 댕형에도 듣지 압사. 서리굽도
 듣지 압사. 대뿔도 듣지 압사. 드리끌도 듣지 압사.

난생애에도 듣지 않서. 생대밖도 듣지 않서. (2)
귀고양도 듣지 않서. 난디나인 생글주를 물어듣고
양으로 들어사인 아강주를 물어다가 양방으로 들어상.
앗갓를 좋은 대항속에 황급으로 정제하영. 아강줄
위에 올영. 혼번 덕덕치인 주손에 창성 시기곡
두번 덕덕치인 우아번성 시기곡. 시번 덕덕덕 치인
옥죽시림 시저줍서.

철성아방 장나라 장설룡. 철성어영 송나라 송설룡.
일곱철성. 아리름 아기 다리름 아기. 공판아기. 서판아기
일곱아기. 단아설룡 거느립던 철성심 본산국이되다.

철성심 산산국은 강남 옥골 이양산 고장남밖
질천당밖서 솟아남던 일곱철성 입세다.

옛날옛적.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과 부배간
살아올때 천하거부로 잘공사나. 오십수인이 근당해도
주식하나 엇어 호이 근심 하옵세다.

장설룡 대강남은 송악지 구안장. 기사지 구안장. 상백이
일천석. 중백이 일천석. 하백이 일천석. 백근전량
준준이 채와 동개남 상저저에 일불수룩을 드려
인간에 여주식이 탄생 하옵세다.

아기씨가 혼 두설이 덮어 일곱설 나눈해에
아바님은 천하공수 살레가고. 어어님은 지하공수 살레
가게된대. 아기씨를 두령가져 혼외 도령갈수 엇어지고
아흔오름 고무살장 무어놓고 고무살장안에 가득한
아바님 어어님 공수 살앙올때 갓지 느진덕 정하님신다
공기로 밥을 주고 옷은주영 살렘시원 공수 살앙 왕
종운세 들라 주키에 허여놓고 아바님은 천하공수 살레
가고. 어어님은 지하공수 살레 가옵세다.

느진덕 정하님은 공기로 밥을주고 옷을 주영.
흔을 이를 지나누게 칠일 일려 되는 날은 느진덕 정하님이

궁기로 뱀을 주저 그루살장 안을 보낸 아기씨가 ③
간간무래 되웁니다. 연사들을 동사순령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지고 느진덕 성하님은 탄복을 호되.

「상전이 왕 보인 뭍을 돌려 죽을로고나.」

논심수심이 태산이라 지웁니다.

홍수웃이 공시살레간 큰 상전 셋상전 아피 서신을
보세되.

「아이씨가 간간무래 되여시나 여사 바빠 돌아옵서」
그때에 아기씨는 그루살장 궁기로 무지몽지 나아간
세각단 밧디 뭍은 각단 밧디 맞안 밤도영청 낮도
영청 두 일체 열나을을 을단보난 아이씨 죽을수심이
근당 혼웁니다.

그때에 동으로 오는 건 삼베중이 느립니다.

아이씨가 알을호되

「앞의 가는 대스님아.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도 아니 건너며 느려가고

「뒤번차 오는 대스님아. 나를 살려 주옵소서」

「너가 어느 누제 켜느냐?」

「나는 장나라 장성홍의 큰님이 켜웁니다」

대스중이 알을호되

「허허. 우리 법당에 모란 수록드려 관생 혼 아이씨
로고나.」

대스중이 아이씨를 툰 툰 산 장나라를 느려살때
장나라 장성홍 대감님은 부배간이 공수를 그만두고
오란보난 아이씨가 간간무래 되여시나 동사순령
아명 찾아도 찾을 수 없어간다.

혼을낳은 호이탄복 혼영 사난 대스중은 아이씨를

오장상에 툴튼 싸아진 장선룡 대감님 번 문 물광들
안에 파묻어 두고 먼 문 안으로 들어사영 (4)

「소승 설이 뻔하다.」

장선룡 대감님이 말을 한다

「소승 설이 뻔고 아주세 뻔고 너의 법당에 간
수룩드린 아기가 갓간부려 되여사. 오행팔팔
단수옥갑이나 쫓아보라. 어원로 갔겠느냐?」

대스중은 손가락을 우그러 떼죽 한다.

「대감님아. 아끼신 불르신 들을 듯. 위인 안 듯

흔더 이설 듯 합니다. 물광들이나 파아 봄서.」

대스중이 이 말을 끝났더니 장선룡 대감이 성질을
발딱 내어

「재화가 이중 재화로다.」

대스중을 불러들여 죽이서 할 때, 대스중은 술법으로
천릿길 뛰어가고 만릿길 뛰어가나. 대감님은 그 말대
로 물광들을 파아보나 아끼시는 오장상에 툴튼 싸
이십니다. 오장상을 끌어놓고 아끼실 내여한 보나
아끼시 얼굴엔 검은 시이가 지고 아끼시 몸체는
아리롱 다리롱 하고 아끼시 맨 보나 두통배가
되였구나. 장선룡 대감님은

「양반의 집 스랑공스 샀구나.」

아끼시를 죽이서 혼이 엇어지고 우수세설갑 채와놓고
등이라당 여와간다.

든물에도 흥당 난물에도 흥당 강남옥글서 제주
물모를을 근당하나 오성상운 일스당 산질개로 들젠
하나 산지통글 철머리 세베드원수 세여지고. 화북으로

들쭉터나 가릿당이 켜여지고. 가물개로 들쭉터나 (5)
시원도병수가 켜여지고. 실개로 들쭉터나 수복기남알
개로음서 켜여지고. 신촌으로 들쭉터나 큰물어리 켜여
지고. 고창으로 들쭉터나 새곶알 고창할양이 켜여지
고. 신흥으로 들쭉터나 불레남알 박지할양 켜여지고.
함덕으로 들쭉터나 수레물거리 켜여지고. 북촌으로
들쭉터나 해산궁이 켜여지고. 동북으로 들쭉터나
고창지 영감 켜여지고. 김성으로 들쭉터나 안성성이
박성성이 켜여져 못내들고. 서화리로 들쭉터나
천지백주 금성이 켜여져 못내들고. 두문서산으로 들쭉
하여 서의와당 들어간다. 함덕을 근당하니 서오오름
평풍여 알 썩은개로 올라간다.

그때에 함덕 뗏개 열쇠가오 일곱짐수가 사슴네다.
일곱짐수가 함을 아침 안풀이나 들쳐 아픈테왕
아픈 불상사리 아픈비창 서느리고 서오오름 평풍여
썩은개로 들쭉하니 난디웃인 우체설잡 올려시킨
일곱짐수 들러들언 「내가 먼저 볼랐저. 누가 먼저
볼랐저」 어리함이 심으심 썩음싸움 허였시나
함덕 송침지 영감이 혼뽕 솟흔 불라춤때 예송동
바구리 들러에여 서오오름 알 평풍여를 들어산
아랑소리 외자자자 웨여가난 송침지 영감은 열이나
들어선가 허면 썩은여에 내려산 본래여 보난 일곱짐수
가 싸움싸움 허였시나 송침지 영감이 알을호되.
「이년 서년달아. 일일로 음 싸움을 하느냐?」

일곱짐수가

「송침지 영감달아. 기영하게 아나. 우체설잡을

내 운저 봉났는다 저년이 운저 봉그고래 싸움싸움
허였수다 - (6)

송철지 영강이 달을하되.

「네네덜 경 할랑 무세살잡 안에 은이드나 금이
드나 네네덜 일곱이 반듯이 갈라 앓곡. 무세살잡
이랑 날 주인 담뱃살잡이나 혼노라.」

「어서 걸랑 그럽소서」

송철지 영강이 무세살잡을 삼십번 에여치니 절로싱강
운아진다. 무세살잡 안에 보나, 세는 열두. 눈은 펴름.
아리흥 다리흥 일곱이 산아실총 청구래이 흥구래인 듯
청안주에이 흥안주에인 듯 무세살잡 안에 소랑
소랑 이시난.

「아나 누추하고 재수 웃은거 배이는구나.」

송철지 영강 둘러들언 아른 줍대로 등서레레 개우리고
일곱줍수 덜 둘러들언 아른 비창 한 비창으로 등서
레레 개우리난 그한부터 일곱줍수 송철지 영강에
가슴엔 시끄러내기 일러주고 눈에 청설리 흥설리
불려주니 일곱줍수 송철지 영강 죽을 신경이 되여간다.
하도답답 민망하난

「아는 무녀 흔히 운복이나 허여보저」

그때에 가물개 살던 이원석이 살아실때. 이원석이
안티 운복을 허여보난.

「아떤 일로 숲의 나라에서 온 일신을 박정훈

죄목이 되웁네다. 전새남을 허여사구다.」

일곱줍수 송철지 영강이 전새남을 허여 칠성새남을
하난 뽕엿 신병 좋아지고. 등서으로 먹은년 입을년

나수와 천하거부가 되옵니다.
인물중수 송철지 영상이 사오오름 앞의 칠성당을 꾸어
충고 위로하여가난 또 사름덜로 「나도 2짜 하저」
위로하여 함덕수를 부춘이 되옵니다.

인물칠성이

「우리가 이디만셔로 아니될거. 도성안이 있다. 하
도성안이나 찾아가 보저」

인물아기 거느리고 낮인 대로로가저 개 중성이 은수와
지고 낮인 소록길로 밤인 대로로 함덕 금성동산
영끼 움끼 불려두고 조천 만세동산 영끼 움끼
불려두고. 신촌 연녀운거리 영끼 움끼 불려두고
질다 질다 진드르 영끼 움끼 불려두고 화북 벨도
살썩거리 영끼 움끼 불려두고. 베릿내를 근당하난
물이 베질베질 하여시난 인물아기가 묶은 옷 벗어
가시당에 걸쳐두고 베릿물에 들어간 몸소목 하고
나와 새 옷 입고 나사나. 그때 베릿물에 몸소목
하여난 때문에 베릿내로 이룩을 자옵니다.

인물아기가 그으니 수를 치들어 사난 그웃그웃 하여서
아뭇 생각이 엇어집니다. 그때 내은 법으로 춘백성
송스흔레 도성안 들어살때 그으니 수를 근당하인
그웃그웃 하여 송스생각이 엇어 집니다.

그으니 수를로 이룸 삼제 지와두고 도성안을 들어
사저 가락춧 머리를 들어산 보난 물질 수려가는
중기가 나아시난 인물아기가 그 중기로 도성안을
들어가고 칠성골을 들어사 송대정 집 먼 문앞의
소랑소랑 누웠더니. 송대정 부인이 신지 금산물에

아침을을 잘 제 먼 운백을 나산 보나 일곱아가가
소랑소랑 누워서나 「이제 어떤 일이고?」 송대정
부인이 증산물에 간 치맛 벗어 물뚝에 놓아두고
술을 들러 나오라 치매안에 브래여보나 일곱아가가
소랑소랑 치매강에 누워서나 송대정 부인이

「나안티 태운 초상이건 어서 우리집으로 급저」
치매강에 차아전 연양상고광으로 가 모셨더니
송대정 첩이 웬드종이 알게 천하거부 되옵데다.
칠성님이 잘 은침 송대정 첩이 완 좌정허여나
때문에 칠성골로 이릉 상제 지옵데다.

흔들날은 일곱아가가 배부른 등산의 간 소랑소랑
누웠더니. 관원이 행차한다 눈에 편식한다

「누추하고 추접흔 거 베인다」
춤 투투하게 삼십번 바깥더니 그날부터 입에
구강 열두풍문을 불려주 답답인양 한다 아는 신서
불러 운복을 하였던나

「어떤 일로 외국 임신이 눈에 편식을 하니 입으로
속절지 죄목이 되옵데다. 전새남을 흡소서.」
칠성새남을 한다 일곱칠성이 많이 얻어먹은 배가 부나
등지딱 배지딱 배부른 등산으로 이릉 상제 지와
두고. 어영궁이 알을하되.

「우리가 음 한아히 당기어 얻어 먹을 수 있어지나
네덜 갈들로 치지 할 들로 쓴 벌여사라.」

「근 쪽 아기 어들로 갈리」
「어머삼아. 난 추수옷도 내 치지 추수한양으로 들어사구

추수할양으로 들어사고

「셋 딸아기 어들로 갈티?」

「난 이방 심방도 내 찻지우다」

이방 심방 방으로 들어사고.

「식채 딸아기 어들로 갈티?」

「목 찻지도 내 찻지 허쿠다」

목지기로 들어사고.

「닛채 딸은 어들로 들어살티」

「동과원도 내 찻지, 서과원도 내 찻지 허쿠다」

과원 할양으로 들어사고.

「다섯 채 아기 어들로 가겠느냐?」

「동창채도 내 찻지, 서창채도 내 찻지 허쿠다」

창채지기로 들어사고

「잇섯 채 아기 어들로 가겠느냐?」

「난 광채꽃도 내 찻지우다」

광채 할양으로 들어사고

「일곱 채 아기 어들로 가겠느냐?」

「어머님아, 든점글 신점글 날 알로 청주제가
청주제가 청지에 흥지에 알로, 뒤으로 엇대부군

칠성으로 들어상 구시월 나인 든점글 신점글

진상발아. 어머님 우리 일곱칠성 살젠 허나

가슴인달 답답이사 아녀웁데가? 든점글 신점글

진상을 울리건 어머님 답답흔 가슴 시원석석이

어이단목 슬픈 가슴이나 존질롭서」

「서른아기 부모여 효심 허쿠다」

뒤으로 엇대부군으로 들어사고.

어어어은 어어어어어? -

관 열양 상고판으로 대독 안으로 소독알로 검은독
노린독 알로 대두지 소독지 알로 섬지기 알지기
되지기 흡지기 하려해야 열두서만국을 거두왕
안철성으로 들어상 열어억을노라. -

어어국은 상고판 안철성으로 들어상 열두서만국을
거두와 굶다 철성입이다.

철성님 산산국은 신돌것사육기 안철성님에서
보리농사 가을추곡 사산국을 한발사경 이간주당
대독소독 검은독 노린독 대두지 소독지 섬으로 알로
되로 흡으로 열두서만국을 신사습고. 철성님 사복림
나사지 할양 경험사능 예사능 증이사능. 상수를
중수를 하수를 외도리 내도리. 상가지 중가지
은은장안. 을당 네당. 나아상. 눈에 펜싱하게 알국
키으로 뒤칠성님이라 유기제출. 허튼증전 신사수와
팔모아랑주를 신사습고 이간주당 천하거꾸 시저줍서
섬지기 알지기 되지기 흡지기 관광생이처럼 거느려
삼진 초저원 나와 신과세 문안. 해넘는 천갈이로
상을 바칩니다. 철성님에서 들서으로 오는 굶인 앵건
알아줍고. 농의나라에서 들어오는 굶인 신벵덜
후게알양 철성님 죄정 혼딜로 죄정허영 주손에
재수 신수앙을 나수와 줍서.

철성님 산산국이 되웁니다.